

# “한국불교 세계에 알려요”

## 신행연장

### 조계사 외국인 안내 봉사팀

“나무로 세워진 한국 절이 참 아름답네요. 꼭 예술품 같아요. 특히 나무에 새겨진 그림이 정교한데 어떤 재료로 어떻게 그린 것이지요?”

10월 31일 피터(미국인)부부는 조계사 외국인 안내소에 찾아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사찰 안내를 요청했다.

이날 자원봉사 당번인 영어권 봉사자 이원자(61), 이은석(31)씨는 곧바로 ‘템플가이드(temple guide)’ 카드를 목에 두르고 조계사 안내에 나섰다.

“이 절의 대응전은 큰 영웅을 모신 집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문살과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사찰안내 자원봉사자들은 1시간 동안 조계사 곳곳을 돌며 관광객들에게 한국불교와 조계사 건축양식에 대해 설명했다.

잠시 후 외국인 안내소에는 일본 아사히 어린이신문 기자들이 찾아왔다.

일본어 안내 봉사자인 정수명(75), 신혜숙(72)씨가 바베 템플 가이드 카드를 두르고, 어린이들을 인솔해 대웅전으로 향한다.

어린이기자들은 “대웅전 공사할 때 인부가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일본에서는 향을 비스듬히 쏘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독특한 질문을 쏟아냈다.

정수명, 신혜숙씨는 일본 어린이 기자들의 물음에 자상하게 대답하며 자연스럽게 일본불교의 원류인 한국불교의 역사성 등을 곁들여 설명한다.

외국인안내 자원봉사를 위해 매일 인천에서 온다는 신혜숙씨는 “30년간 책을 보며 독학 해온 일본어로 안내봉사에 나서게 됐지만, 절에 꾸

### 일어·일본어 통역자원자

### 30여명 하루 8시간 활동

준히 나오면서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계기가 돼 오히려 인생의 보람을 찾았다”고 밝힌다.

1999년 9월에 개설된 조계사 외국인 안내소에는 현재 영어, 일어 자원봉사자 30여명이 활동 중이다. 조계사를 찾는 외국인인 하루 평균 100~200여명. 이중 반수 정도가 외국인 안내소를 찾는다. 하루 4~8명씩으로 편성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조계사 외국인 안내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조계사



◁조계사 외국인 안내자원봉사자들이 절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사찰건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서 외국인 안내 교육을 받은 신도들로 구성돼 있다. 그런만큼 안내봉사자들은 외국인 안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틈틈히 법회에 참가하고, 사찰순례 등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루 몇차례가 되더라도 찾아오는 외국인들과 함께 참배 및 독경하며, 간이체험을 인도하는 것도 봉사자들의 중요한 임무(?)가 됐다.

외국인 안내소가 생기면서 가장 먼저 자원봉사활동을 자청하여 현재는 자원봉사자교육 일본어 선생님이 활동하고 있는 조계사 30년 신도 정수명씨는 “일본소식을 번역하다 원찰인 조계사에 외국인 안내소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조계사에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다”며 “외국인들에게 사찰안내를 해보면 생각보다 진지하게 받아들

인다.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최근 질 높은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관광객들이 실망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사찰문화에 대한 자체공부를 강화하고 있다. 또 조계사를 찾는 관광객은 모두 조계사 외국인안내 봉사팀이 가이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그런만큼 올해부터는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한번 찾아왔던 외국인들이 친구나 가족을 데리고 찾아오는 횟수가 부쩍 늘어났다.

한편 조계사 외국인 안내소는 3일부터 제 7기 외국인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안내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있는 불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732-5292.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nia.com

## 주제가 있는 법문

### “중생의 보다 나은 삶위해 사회복지와 포교 나서자”

불교의 사회복지와 포교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근간으로 중생구제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종교적 실천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실천에 옮기기를 망설여왔습니다. 이러한 때 사회에서는 급속한 변화와 가치관의 혼란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각 계층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정신적 안정과 기본적인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불자로서 참된 삶을 사는 일일 것입니다.

### 불교는 실천의 종교

### 완전한 인격자로서의 길

최근 불교계에서 사회복지와 포교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면서도 고무적이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를 안정하게 하며 모든 사람들이 보다 평등하고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사상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곧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사회복지와 불교의 일치점입니다.

불교는 해탈, 자비의 종교로 표현됩니다. 또한 철학적으로는 고(苦), 공(空), 무아(無我)를 실천하고 체득하는 종교이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인격자 즉, 불타(佛)가 되는 길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보살이 자리이다(自利利他) 행을 통해 불국토를 건설하고 자타가 모두 불타가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대승보살의 서원이며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불교 역사상 구체적으로 공립



홍선스님  
남양주시  
무량사 주지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종교적 실천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실천에 옮기기를 망설여왔습니다. 이러한 때 사회에서는 급속한 변화와 가치관의 혼란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각 계층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정신적 안정과 기본적인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불자로서 참된 삶을 사는 일일 것입니다.

불교의 시각에서 본다면 재해가 일어난 이후 응급적인 조치보다는 사람이 사는 자세 즉,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통한 인간의 근본자세를 일깨우고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불교는 사회교화로부터 시작하여 보시, 복전(福田), 인간존중, 방생사상은 물론 자기의 육신마저도 시어(施與)하여 굶주린 사람을 구하려는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사업의 실천을 통해 부처님의 사상을 포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교설 가운데 업(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업설’이야말로 인간의 과거적 생활을 현실적으로 종결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재해, 공멸 등을 과거 업의 하나로 간주해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업설은 과거세(過去世)로부터 있었던 행위를 현재에 받는 인과응보의 이치가 아니라 마음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신체적 활동, 언어활동, 마음가짐 등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삼업(三業)의 근본적인 핵심을 추구하고, 그것을 정도의 방향으로 끌어내자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교 복지사업과 함께 상담, 교육, 재활활동 등 보다 적극적인 포교 프로그램을 추진시킬 때 포교의 목적도 더 비좁아지게 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신행캘린더

### 11월 8일(목)

■조계사 교양강좌=조계사는 오후 7시 교육문화관에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권영근 소장을 초청, ‘우리는 가족, 사람의 생명운동’을 주제로 교양강좌를 연다. ☎2720-1390

### 11월 9일(금)

■대한민국 종교예술제=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15일까지 예술의 전당과 서울 에디메이션센터, 프레스 센터에서 ‘대한민국 종교예술제’를 개최한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7대 종단의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2766-4776

### 11월 10일(토)

■실상사 생태문화기행=맑고향기롭게는 11일까지 중·고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북 남원 실상사 일대에서 ‘사찰생태문화기행’을 실시한다. 신청은 6일까지. ☎213672-5945

### 11월 11일(일)

■연천지장암 창건법회=연천군 미산면 지장암은 오전 10시 창건기념 우륵스님 초창법회 및 초창전도제를 거행한다. ☎31833-1988

■한마음 선원 합창제=한마음 선원은 오후 4시,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님의 소식’을 주제로 한마음 선원 합창제를 개최한다. ☎31470-3100

■동호당 추모비 제막식=화엄문도회는 오전 11시 안양 관악산 불성사에서 동호당(東湖堂) 장한(張韓) 대종사 추모비 제막식을 봉행한다. ☎17650-1196

■경남인터넷불교방송 개국법회=경남인터넷불교방송은 오전 11시 경남 고성 육천사 내 마련된 방송총국에서 개국법회를 갖는다. ☎55672-0100

■영어법회경 강좌=서울 서교동 법화정사는 오전 11시부터 12시 15분까지 법회경 연구가 김명진 씨를 초청, <영어 법회경> 강연회를 개최한다. ☎2326-1331

### 11월 12일(월)

■범주스님 달마 선묵전=대구 영남 불교대학 관음사는 30일까지 관음사 3, 4층 대법당에서 불교유치원건립을 위한 ‘범주스님 달마 선묵전’을 개최한다. ☎53474-8228

### 11월 14일(수)

■석주, 석정스님 선사화전=불교TV는 20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위성방송 설립 기금 마련을 위해 ‘선속의 묵향’을 주제로 석주, 석정스님 선사화전을 갖는다. ☎23280-3413

## 생활속의 불교

## 농음과 버림

‘나’라는 존재를 떠받드는 것들은 무엇일까? 생명·건강·권속·재화·명예·일터와 같은 것들이 그것일까? 분별의 잣대로 본다면 그럴 것 같기도 하다.

그것들은 액자에 들어 있는 소중한 그림과 같아서 늘 보존에 힘을 쏟는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하나라도 잃게 되면 곧 충격과 비판에 짓게 마련이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들을 놓고 갈 수 있던 말인가.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요 잃는다는 것은 곧 두려움이 아니던가.

놓으라는 것은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건강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도 아니다.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명예나 일터를 우습게 여겨

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나’라는 틀을 깨라는 의미이다.

본래 내 것으로 고정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바람개비처럼 돌아간다. 그것이 불멸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는 바람개비에 ‘나’라는 못질을 해서 그것을 내 액자에 가둬 놓으려고 한다. 그 성에 따라 행이나 불행이나 말한다. 놓으라는 것은 그 ‘나’라는 상을 버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이 그동안 무엇에 의존하며 살아 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의 대부분은 그런 순간에도 오직 잃어버릴 대상에만 집착할 뿐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찾지 못한다.

놓으라는 것은 집착하는 마음의 짐을 벗어 놓으라는 것이다. 본래 내 것으로 고정된 것은 없으니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의 집합(集合)처럼 ‘나’라는 틀에 갇힌 대상들을 풀어 놓으라는 것이다.

내가 무엇에 의존하면서 ‘나’로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 보고 거기에 묶여 살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풀려나서 해방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체면 때문에 남의 눈을 고배삼고, 허영 때문에 분수를 망각하는 똑똑한 바보짓에서 벗어나라는 말이다. 누구나 다 본래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龍眼

### “참사람 열린교육”



## 동국대학교

2002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www.dongguk.edu

### 불교대학원

[야간]

(02)2260-3097~8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지도자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불교학과 불교학, 선학

• 불교사학과 불교사

•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 장례문화학과 장례문화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 11. 7(수)~11. 16(금)

#### 전형일시 및 장소

2001. 11. 22(목) 13:00, 본대학원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지도자과정

• 수강과목: 석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전공필수 선택하여 수강

• 지원자격: • 조계종 대외 관계 부서 승려

• 각 종단의 간부

• 각 신원단체의 대표와 간부

•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 전형방법: 원서교부 접수기간: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 전형일시: 2001. 11. 23(금) 14:00

• 홈페이지: http://home.dongguk.ac.kr/~gsbs/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문화예술지도자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공연장학과 공연장학

• 공연예술학과 공연예술, 공연예술·영화영상예술

•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 한국음악, 문화재

•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

• 출신학과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 11. 1(목)~11. 14(수)

#### 전형일시 및 장소

2001. 11. 17(토) 10:00, 본대학원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문화예술지도자과정

• 모집분야: • 공연예술, 문화예술 및 장례문화관련 종사자

• 한국음악, 문화재, 공연예술경영, 조형예술경영

• 지원자격: • 정부 각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 각 시립 주립급 스님

• 언론·문화·예술 및 연예인과 유관기관의 임직원

• 사회지도급 인사와 기업체 임원

#### 전형일시, 방법, 원서교부, 접수일시: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불교학과 불교학, 선학

• 불교예술학과 국악, 불교미술

#### 장례문화학과(신설): 장례문화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 11. 12(월)~11. 22(목)

#### 전형일시 및 장소

2001. 11. 24(토) 14:00, 본대학원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지도자과정

• 모집과정: 불교지도자, 문화예술지도자, 장례문화지도자

• 지원자격: • 불교계 각 종단 지도자급 임원

• 국악인, 불교미술, 문화예술 및 장례문화관련 종사자

• 각 신원단체의 대표와 간부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 기타 공무원 기업체, 사학단체 지도급 인사

• 전형일시, 방법, 원서교부, 접수일시: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 2002학년도 전기 행정대학원

# 원생모집안내

- 1.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 최고관리자과정
- 2. 모집학과**
  - 가.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나.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 노인복지 전공
  - 다. 정책학과: 정책학 전공 라. 중우행정학과: 중우행정 전공
  - 마. 지방정부경영학과: 지방경영, 지방의회, 지방재정전공 바.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 3. 모집인원**
  - 각학과 ○○명
- 4. 지원자격**
  - 가. 4년제 정규 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 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다. 최고관리자과정은 학력 제한 없음
- 5.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6. 원서교부 및 접수**
  - 가. 기 간: 2001. 11. 19(월) ~ 29(목) 14:00~21:20(토, 일요일은 제외) 나. 장 소: 대학원 교학과
- 7. 전형일시 및 장소**
  - 가. 일 시: 2001. 12. 1(토) 10:00 ~ 나. 장 소: 교사당일 대학원 게시판에 공고
- 8. 합격자 발표**
  - 2001. 12. 6(목)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 9.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 탈모 상반신 사진 [3×4cm] 4매 부착) 1통
  -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
  -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 라.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여학생은 초본제외) 각 1통
  - 마.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 10. 전형료**
  - 가. 모집요강 및 원서대: 3,000원 나. 전형료: 50,000원
- 11. 기타**
  - 가. 지원학과는 대학의 출신학교에 제한을 두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바람
  - ☎ 전화: 02)760-4271, F A X : 02)760-4273, 인터넷홈페이지: www.hansung.ac.kr



HANSUNG UNIVERSITY